

자발적인 학문 활동의 밑거름

함현호*

* 스터디 그룹 '현대 민주주의 연구' 팀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재학중.

지난 학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 하에 운영되었던 스터디 그룹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스터디 방법으로 정규 수업의 특성을 활용·발전시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스터디 그룹은 정치학과 전공 수업인 '현대 민주주의의 쟁점'(임경훈 교수)을 수강하는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처음 스터디 그룹을 조직한 이유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스터디 그룹 공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먼저 수업을 듣는 몇몇 학생들은 영문으로 된 방대한 양의 커리큘럼과 참고문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스터디 그룹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토론 활동의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업은 '경제 개혁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제도', '세계화와 민주주의',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하고 논쟁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과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강생의 수와 수업시간의 제약은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수업 '현대 민주주의의 쟁점'은 몇 가지 제약들로 인해 수업시간 내에 충분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스터디 그룹은 시험 대비 및 성적 향상이라는 최소주의적 목적은 애초부터

이미 배제되어 있었다 수업시간이 지나는 몇 가지 제약들을 극복하고 강좌의 잠재된 장점을 극대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문 활동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영문 커리큘럼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비판적 문제 의식을 심화·발전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고 나아가 각자의 관심을 발전시켜 독자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스터디 그룹의 운영은 일주일에 1회, 대개는 수업 당일 저녁에 두레문 예관 세미나실 등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세미나 운영 형식은 대개 ① 당일 수업 내용의 정리와 토론, ② 주제 커리큘럼 발제, ③ 질의 응답 및 커리큘럼 이해, ④ 토론, ⑤ 정리 등으로 이루어졌고, 토론의 내용은 탐원이 돌아가며 정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리문을 게시했다 이후 큰 주제가 끝날 때마다 종합 토론을 병행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종합적인 이해와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이처럼 이



임현호 학생(정치학과)이 ‘현대 민주주의 연구’ 스터디 그룹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어진 세미나는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질의들을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제기하여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역시 수업시간에 제기된 질문들과 쟁점들을 스터디 그룹의 세미나에서 다시 심도 있게 토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업과 세미나 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고, 더불어 스터디 운영과 수업의 내실을 더욱 제고할 수 있었다. 덧붙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팀원 모두는 주제 커리큘럼을 모두 숙지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제는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며 맡았다. 많은 발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금제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다행히 누구도 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다. 세미나에는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토론이 뜨거워졌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발제의 할당, 발제문·토론 정리문·보고서의 게시, 미진했던 토론의 연장, 팀원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본 스터디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주제 토론 세미나와 수업시간에 학습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가 자신의 관심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팀원들은 수업과 세미나의 내용을 통해 보다 시사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점검했다. 4월말에 각자의 문제의식이 담긴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팀원과 의견을 교류하여 각자의 주제를 확정하였다. 이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6월초에 팀원 모두가 자신이 계획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완성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 구입 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각자의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권채령, 「한국 민주주의의 쟁점: 전자민주주의의 미래」

유혜영, 「한국 민주주의의 쟁점: 분점정부와 정국 운영의 효율성」

윤지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

이지연, 「사회적 합의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함현호, 「한국의 대통령제 개혁 논의: 기존 논의의 한계와 극복」

각 논문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정리하고 그 논쟁의 성격과 의미 및 한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각자의 논문은 세미나 시간을 통해 발표·토론되어 서로의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팀원들의 충고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된 각자의 독자적인 연구 경험은 이후 각자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스터디 그룹의 의미 있는 성과는 매우 많다. 무엇보다 가시적인 성과는 학점일 것이다. 학점에 있어서 팀원 모두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습 활동을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토론을 통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비판적 학습을 통해 수업시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앞에서 소개한 각자의 연구 성과가 보여주듯, 팀원들 각자가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그룹 스터디를 통해 팀원들이 수업시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중 진행되는 논의에서 매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 대한 숙지도가 높고 이미 다양한 토론을 했던 팀원들의 발표와 문제제기로 수업 분위기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각 팀원들의 열정과 적극적 참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팀원들은 모두 토론을 통한 상호 이해와 비판적 문제의식 발전이라는 스터디 모임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기에 자신이 담당할 발제, 토론, 정리문 작성 등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고, 특히 토론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주고받았다. 한편 스터디 모임의 성격을 '토론'을 위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스터디 모임이 초기부터 혼란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했다. 토론 활동을 위한 일련의 규칙과 모임의 정례화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편 그밖에도 팀장의 역할과 팀원들의 협력 등도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생활을 해나가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그룹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또 다른 생각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대학생활 동안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 겨울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공모한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의 ‘소그룹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과 창조적인 학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